



‘부르고뉴의 대명사 알베르 비쇼’

알베르 비쇼 부르고뉴 샤르도네 비에유 비뉴

Albert Bichot Bourgogne Vieilles Vignes de Chardonnay

지역	프랑스 > 부르고뉴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2.95%	용량	750ml
등급	AOC	시음 적정 온도	10-13℃
테이스팅 노트	감귤류의 향과 바닐라, 생강 등의 스파이시한 향과 함께 과일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다. 적당한 부피감과 우수한 품질의 새 오크통에서 나오는 바디감과 생동감이 특징이다.		



제품설명



샤르도네는 피노누아와 함께 부르고뉴의 위대함을 알린 품종이다. 피노누아가 부르고뉴의 대표적인 품종으로 그 우수함을 뽐내지만, 다른 생산지에서는 매우 어려운 품종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달리, 샤르도네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잘 적응하여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품종이다. 부르고뉴가 원산지인 샤르도네는 산뜻하면서 생동감을 지닌, 섬세한 느낌을 동시에 전달하는 와인이다.

수상내역



2019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88점

와이너리



1831년 Bernard Bichot에 의해 설립되어 가족 소유로 경영되어 온 알베르 비쇼(Albert Bichot)는 현재 6대째 자손인 알베릭 비쇼(Alberic Bichot)가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부르고뉴 와인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베르 비쇼는 부르고뉴 지역 4위의 업체이다. 매출의 70%를 전 세계 100여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부르고뉴 지역의 수 많은 와인들을 우수한 품질로 생산해내고 있는 노하우에 기반한다. 알베르 비쇼는 총 6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와인메이커가 각각 다른 와이너리에서 각각의 페루아를 고려하여 양조하며, 이것은 알베르 비쇼만의 특별한 철학이다. 알베르 비쇼는 스웨덴 왕실 공식 와인 공급업체이며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서빙 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